

삼화페인트의 공정 혁신

“자투리 시간도 재활용... 납기 4일 줄여 年 50억 절감”

10분 단위로 작업시간 분석  
설비분해·청소시간 낭비없애

지난 19일 오후 2시, 충남 공주시 탄천산업단지 삼화페인트 공장. 지난해 완공된 이곳에선 화학용 액체 등을 사용하지 않고 만드는 분말 형태의 친환경 페인트인 분체도료(粉體塗料)를 생산한다. 과거 이 시간엔 기계를 청소하거나 점검하면서 근로자들이 대기하곤 했지만 이날은 실 새 없이 분주한 모습이었다.

보통 페인트 공장에선 주기적으로 출출분쇄 등과 관련된 생산 설비를 열어놓는 채 부품을 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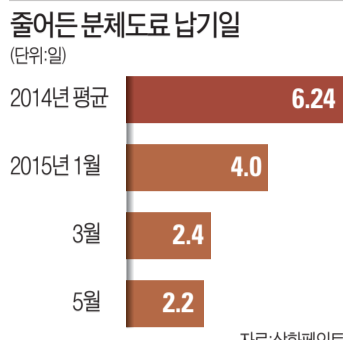
해 청소한다. 하지만 기계를 언제 청소하고 검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메뉴얼이 제대로 없었다. 자주 청소하다 보니 '시간 낭비'라는 문제의식도 생겼다. 근로자들 입장에서 작업이 늘어나는 것도 부담이었다.

회사 측은 청소 검사 대기 등으로 생산설비가 가동되지 않아 버려지는 자투리 시간인 '다운타임(downtime)'을 분석했다. 허성 삼화페인트 사장(사진)

은 “국내 페인트업계 최초로 설비가동률, 공정직행률 등 다운타임 관련 지표를 제대로 들여다봤다”며 “제조업의 설비 분야에서 그동안 소홀히 여겨졌던 자투리 시간까지 신경쓰는 ‘발상의 전환’을 한 셈”이라고 밝혔다.

모든 작업 활동을 10분 단위로 쪼개서 다시 설계했다.

시스템을 재정비해 올초부터 공정에 적용했다. 예전엔 하루 한 시간 반에 달했던 다운타임이 올 들어서는 30분으로 줄었다. 자투리 시간이 감소하자 각종 변화가 나타났다. 가장 큰 성과는 납기 기간 단축이었다. 주문을 받아 생산에서 납품까지



보통 6.24일이 걸리던 납기일은 2.59일로 감소했다. 지난 4월엔 1.9일까지 떨어졌다. 생산성이 20% 향상돼 연간 5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했다.

근로자들의 작업시간도 줄었다. 지난해 월평균 61.8시간을 더 일했던 공장 근로자들은 이제 월평균 18시간만 더 일하면 된다.

삼화페인트는 다운타임 관리를 강관용 페인트(PCM도료) 공정 등 전 부문으로 확대해 기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삼화페인트의 분체도료 매출 비중은 10% 정도다. 허 사장은 분체도료 생산 효율 극대화, 제조업 생산성 향상, 산업 발전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최근 한국생산성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제조업 부문 '생산성 CEO(최고경영자) 대상'을 받았다.

공주=김정은기자 likesmile@hankyung.com

중국 진출 中소위 한 '온라인 전시관' 생긴다

'X한류' 사이트 내달 개장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려는 국내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전용 온라인 전시관'이 생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달 'X(엑스)한류' 온라인 전시관 홈페이지가 만들어진다. 엑스는 '곱하기'란 뜻으로 '(중소기업이 우수한 제품으로) 한류 확산에 기여한다'는 의미를 담았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이트 운영과 중국 현지 마케팅, 각종 인허가 업무는 '모이자닷컴'이, 업종별 업체 선 등 무역 관련 업무는 '코스아'가 맡는다. 모이자닷컴은 2000년 설립된 중국 동포를 대상으로 한 중국 포털 사이트로 회원 수는 60만명이다. 코스아는 물 없이 감는 샴푸 '더샴푸350'을 제조 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이다.

시장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했다. 차량 부품업체였던 코스아는 2013년 샴푸사업에 뛰어들면서 중국 진출을 위해 중국에서 열리는 수많은 전시회에 참가했다.

그러나 '전시회에 쏟아붓는 비용만큼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품을 선보이면 중국 업체가 '짜퐁'을 급세 내놓는 일도 겪었다. 정 사장은 "인터넷 전시장을 만들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적은 비용으로 중국 진출을 할 수 있다"며 "우선 온라인상에서 중국 동포들을 대상으로 입소문을 낸 뒤 점차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진출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사이트를 쇼핑몰과 연계해 이곳을 방문한 소비자를 분석하는 등 '빅데이터'를 유용하게 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차로 중소기업 20여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온라인 전시관은 정석훈 코스아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삼일렉트로닉스 스마트폰용 '스마트키 클릭'

위급시 'SOS 문자' 전송... 녹음·카메라 작동도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길을 걷는데 수상한 사람이 뒤쫓아온다. 불안한 마음이 들지만 내색하기도 모호하다. 스마트폰의 '스마트키 클릭(Klick)'에 손가락을 갖다 댄다. 버튼을 한 번 눌러 미리 입력해 놓은 세 명의 지인들 스마트폰에 내 위치정보를 전송했다.

버튼을 두 번 눌러 '위장착신 기능'을 작동시켰다. 전화벨이 크게 울리자 걸려온 전화를 받는 척했다. 그러곤 세 번 버튼을 눌러 소리 나지 않게 수상한 사람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 버튼만 눌러 앱 실행 삼일렉트로닉스의 '스마트키 클릭'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 스마트폰을 효율적으로 쓰게 하는 액세서리다. 스마트폰의 이어폰 꽂는 자리에 쏙 들어가 마치 원래 붙어 있던 버튼처럼 작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으면 버튼이 작동한다.

긴급하게 지인들에게 'SOS 문자'를 보내는 등 위급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들어 있다. '위장착신'은 피하고 싶은

불편한 자리를 벗어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녹음 기능'은 버튼만 몇 번 눌러 스마트폰을 녹음기처럼 쓸 수 있게 한다. 스마트폰에서 앱을 실행시키기 위해 여러 번 화면을 바꿀 필요가 없다.

녹음 등 12개 기본기능 내장 버튼 두 번 누르면 '위장착신'

"올해 200만개 판매 목표 스마트폰 충전기도 곧 출시"

12개의 기본 기능 이외에도 스마트폰에 깔린 다른 앱을 버튼에 연동할 수 있다. 예컨대 버튼을 세 번 누르면 '한경+' 앱이 바로 곧바로 실행돼 한국경제신문에 실린 기사를 손쉽게 볼 수 있는 식이다. 버튼 클릭은 최대 네 번까지 설정할 수 있다. 스마트폰 '즐거찾기'를 네 개 쓸 수 있는 셈이다.

◆ 부품에서 액세서리 업체로 2001년 설립된 삼일렉트로닉스는 원래 스마트폰 부품이 주력 사업이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초점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데 필요한 보이스코일모터(VCM) 부품을 납품했다.

이 회사 김남수 사장이 스마트폰 액세서리를 생각한 것은 2-3년 전이다. 원형업체의 주문량이 들쭉날쭉해 회사 경영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원형 업체가 대금 지급을 미뤄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는 상황도 종종 발생했다.

김 사장은 이래서는 회사가 지속되기가 어렵겠다고 생각했다. 설계·금형 등 기존 부품사업에서 쌓은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물건을 팔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렇게 해서 작년 말 내놓은 것이 '스마트키 클릭'이다.

입소문만으로 지금까지 3만여대가 팔렸다. 인터넷 쇼핑몰과 소셜커머스 등이 주요 판매 경로다. 보험사에서 판촉용으로 대량 주문해 가기도 했다.



김남수 삼일렉트로닉스 사장이 '스마트키 클릭' 작동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안재광 기자

하지만 김 사장의 기대치에는 아직 못 미친다. 그는 "한 해 200만개 판매가 목표"라며 "기능을 꾸준히 업그레이드해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꼭 사야 하는 액세서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삼일렉트로닉스는 스마트폰 액세서리를 추가로 개발 중이다.펜 모양의 스마트폰 충전기는 하반기 출시 예정이다.

안재광 기자 ahnj@hankyung.com

◆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공모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 △성광유니텍의 스마트 방범시스템창 원가드(042)583-9121 △델리테크의 비타플러스(051)971-4799 △삼일렉트로닉스의 스마트키 KLICK (032)209-8203 △해피리안의 누보백 070-8780-9998

중견·중소기업 기술개발 100억 지원

산업부, 25개 연구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공공연구기관과 출연연구기관을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기술 개발 지원사업에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인력을 공공 연구기관에 파견해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는 25개 과제에 과제당 4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공 및 출연연과 중소·중견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신청한 상용화 기술 개발 과제다.

이 사업이 본격화하면 중소·중견기업들은 공공연의 연구 장비, 전문 인력, R&D 지식과 노하우 등 유무형 인프라를 활용해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22일 자체 홈페이지(www.motie.go.kr)와 사업 전담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공고한 뒤 9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7월1일 서울을 시작으로 출연연과 중소·중견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신청한 상용화 기술 개발 과제다. 김재후기자 hu@hankyung.com

까사미아 소파 2중 출시

까사미아가 북유럽 스타일의 소파 '페니'(사진)와 고급 천연가죽 소파 '리드'를 출시했다.

페니는 단순한 디자인에 차분한 느낌의 회색으로 만들어졌다. 유행에 상관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천 소재 소파다. 알록달록한 원색 단추로 북유럽 스타일의 따뜻한 감성과 개성을 살렸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가격은 1인용 65만원, 3인용 119만원이다.



천연가죽 카우치 소파(등받이나 한쪽 팔걸이가 없는 소파) '리드'는 2단 머리받이가 적용돼 사용자의 체형에 따라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 1인용 소파를 연결하면 너비가 3m까지 확장된다.

당신의 재능을 나눠주세요

# 농촌 재능나눔

## 홍보공모전

**공모주제** "농촌재능나눔" 홍보 및 참여 확산  
- 농촌재능나눔을 통한 농촌공동체 활성화

**접수기간** 2015년 6월 15일 ~ 9월 30일

**참가자격** 스마트재능뱅크(www.smilebank.kr) 회원가입한 일반인(대학생 포함)

**접수방법** 공모전 홈페이지(www.smilebankcontest.co.kr) 접수

시상내역	상 격	상 장	UCC	사 진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상금 300만원(1명)	상금 100만원(1명)	
최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상금 200만원(2명)	상금 70만원(1명)	
우수상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상금 100만원(2명)	상금 40만원(5명)	
장려상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상금 50만원(5명)	상금 20만원(10명)	

\* 접수직후 결과에 따라 시상내역은 변경될 수 있음  
\* UCC부문의 경우 재능나눔 활동분야와 재능나눔 광고분야를 구분하여 심사 진행

**문의** 홈페이지 : www.smilebankcontest.co.kr  
공모전 운영사무국 : 02,360,4538

\* 자세한 사항은 www.smilebank.kr에서 확인하세요

농촌 재능나눔 홍보공모전